【해외학술동향】

『康熙帝の手紙 / 강희제의 편지』 소개와 서평
-번역을 통한 한일 학술교류의 기록-

미야와키 준코(宮脇淳子)*, 남혜림 역**

이 글은 일본『滿族史硏究』(13號, 2015)에 게재되는 오카다 히데히로(岡田英弘)의『康熙帝の手紙』에 대한 미야와키 준코(宮脇淳子)의 서평을 한국의 남혜림 선생(『강희제의 편지』 한국어판의 역자 故 남상긍 선생의 딸)이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일본학자의 서평문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이번『만주연구』제19집에 해외학술동향으로 실리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지난 해 남상긍 선생의 번역으로『강희제의 편지』(경인문화사, 2014)가 출간되어 한국에서는 원저자인 오카다 선생과 부인인 미야와키 준코 선생에게 한국어판을 보내준 일이 있었다. 당시 미야와키 선생은 그 책을 주변의 지인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滿族史硏究』의 편집책임자인 도쿄대학 스기야마 키요히코(杉山清彦) 선생이 한국어판을 보고 무척 감탄하여『康熙帝の手紙』개정증보판의 소개와 서평을 맡은 미야와키 선생에게 한국어판 출간 경위 등에 대해서도 꼭 자세히 소개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였다.

그리하여 미야와키 선생은 한국어판 출간과 관련해서 그동안 저자와 역자 간에 오고간 저간의 사정을 일본 서평에 상세하게 소개하게 된 것이다.

그 후 한국에서는『滿族史硏究』에 게재될 미야와키 선생의 서평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국내학계에도 소개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전했고, 미야와키 선생은 편집책임자인 스기야마 선생에게 일본의 학술지 간행 이전에 원고를 한국에 보내서 번역을 진행하도록 해도 괜찮을지 문의하였다. 스기야마 선생은 한국어판을 게재해도 무방하다는 회신, 즉 한일 양쪽 원고에 두 책(일본어판과 한국어판『강희제의 편지』)의 관계에 대한 부기(附記)만 있으면 된

* 岡田宮脇硏究室 主任硏究員, 東洋史家・學術博士

** 이 글은 宮脇淳子의「岡田英弘 著,『康熙帝の手紙』(清朝史叢書, 藤原書店) 刊行をめぐる諸事情」의 한국어 번역이다.

www.kci.go.kr

다는 답변을 주었다. 이런 경위로『강희제의 편지』서평을 한일 양국의 만주학 전문 학술지에 그것도 거의 같은 시기에 수록 간행하게 된 것이다. 이는 향후 이 분야 전문학자들의 학술교류와 협력 및 우호 증진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며, 이 글이 게재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한일 양국의 여러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편집자]

후지와라서점에서 출간이 시작된 <청조사총서>의 제1탄인 본서는 1979년 중앙공론사에서 주코신서(中公新書)로 출판되었던『康熙帝の手紙』의 개정증보판이다.[1] 원판은 199쪽 짜리 신서판[2]이었지만, 희대의 명군으로 추앙받는 청조 제4대 황제 강희제(康熙帝)가 마지막 몽골 유목제국 준가르의 군주 갈단과의 전쟁에 세 차례나 친히 종군하는 동안 베이징을 지키고 있던 가장 총애하는 황태자에게 만주어로 직접 적어 보낸 편지를 자연스러운 일본어로 번역하여 소개한 것으로, 당시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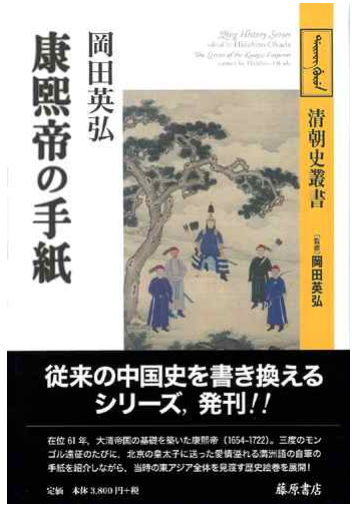
그러나 만주어로 적힌 편지의 내용 자체가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일본인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몽골초원의 유목민 준가르와의 전쟁에 관한 것이었고, 권두의 개설 '중국의 명군과 초원의 영웅(中國の名君と草原の英雄)'도 학계에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 곳곳에 등장하는 1급 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일반 독자들에게 17세기 몽골과 티베트의 역사가 낯설었기 때문인지 신서판은 증쇄되지 못한 채 끝내 절판되고 말았다.

이후 이 신서판은 만주학이나 몽골학에 뜻을 둔 연구자들의 필독서가 되었으나 고서적 시장에 나오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본서를 읽고 연구의 길에 들어선 만주학자들은 복간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이번 <청조사총서>는 2009년 5월에 출간된『청조란 무엇인가(清朝とは何か)』(岡田英弘 編,『環』[3] 別冊⑯, 藤原書店)가 성공하면서 시작된 기획이다. 15명

1) 역자주 : 岡田英弘,『康熙帝の手紙』<清朝史叢書>, 藤原書店, 2013, 472쪽, 정가 3,800엔.
2) 역자주 : 182㎜(세로)×103㎜(가로)의 판형. 크기는 문고판과 비슷하나 주로 일반교양을 다룬 서적이 많음.
3) 역자주 : 후지와라서점이 2000년 4월에 창간한 학예종합계간지이다. 본지(本誌) 외에 매번 하나의 주제로 별책이 출간되며『청조란 무엇인가』는 '세계사' 속에서 청조를 재조명한

의 저자가 집필에 참여한 『청조란 무엇인가』는 청조 연구를 빼놓고는 청일전쟁 이후의 중일 관계나 '만주'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 후지와라서점의 후지와라 요시오(藤原良雄) 사장이 오카다 선생께 감수를 의뢰하여 1년 동안 연구모임을 지속한 끝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각 연구자에게 할당된 쪽수에 제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각각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각 집필자가 책임지고 한 권씩을 담당하는 <청조사총서>를 향후 10년에 걸쳐 간행하게 된 것이다.



<청조사총서> 연구회는 이후 거의 두 달에 한 번 꼴로 후지와라서점의 회의실 모야이안(崔合庵)에서 각자 자신의 저서의 테마에 대해 감수자인 오카다 선생과 후지와라 사장에게 설명하는 식의 연구 모임을 개최하여 2012년에는 회의만 열세 번을 가졌다. 총서의 제1탄으로 『강희제의 편지』를 복간하는 데에는 처음부터 모두 의견의 일치를 본 상태였다.

다만 신서판 판형 그대로 나가는 것은 <청조사총서>의 형태를 고려했을 때 불충분했기에, 일본어 번역의 바탕이 된 만주어 원본의 영인본이 1977년에 타이베이의 고궁박물원에서 간행된 『궁중당강희조주접(宮中檔康熙朝奏摺)』 제8집・제9집의 몇 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출처주, 그리고 일본인에게 생소한 17세기 만주, 몽골, 티베트 역사 속 표현들에 대한 측주를 달게 되었다. 저자이신 오카다 선생께서는 이미 여든을 넘어 출처를 다시 찾아보거나 새로이 주석을 달만한 기력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총서 연구회 일동이 힘을 합쳐 본서를 완성하게 되었다.

출처주는 구스노키 요시미치(楠木賢道) 씨, 측주는 스기야마 키요히코(杉山清

다는 취지하에 별책 제16호로 간행되었다.

www.kci.go.kr

彦) 씨가 중심이 되었고, 몽골 관련 부분은 본 서평의 필자인 미야와키 준코(宮脇淳子), 티베트 불교에 관해서는 이케지리 요코(池尻陽子) 씨, 몽골초원의 식물명과 의약품 관련 주석은 와타나베 준세이(渡邊純成) 씨가 각각 담당하였다.

아래는 그 목차와 내용이다.

<청조사총서> 발간사
들어가며
서(序) 청조란 무엇인가 – 세계사 속의 대청제국
강희제의 편지
중국의 명군과 초원의 영웅
고비사막을 넘어서 – 제1차 친정
사냥의 파노라마 – 제2차 친정
활불(活佛)들의 운명 – 제3차 친정
황태자의 비극
오카다 히데히로의 초판 후기
보(補)
1. 몽골 친정시의 성조의 만문 서간
2. 갈단은 언제 어떻게 죽었는가?
3. 티베트・몽골문 젭춘담바 전기자료 5종
4. 강희제의 만문 서간에 보이는 예수회 선교사의 영향
5. 강희제와 천문학
6. 개원성신고(開元城新考)
보주(補注)
사료(史料)
1. 도론노르회맹 (쿠스노기 요시미치)
2. 황태자 폐위의 상유(上諭) (쿠스노기 요시미치)
3. 황태자 복위의 취지 (쿠스노기 요시미치)
4. 강희제가 황장자 윤제(胤禔)의 행동을 감시하라며 보군통령 탁합제(托哈齊)에게 비밀리에 내린 상유 (스즈키 마코토)
5. 달라이라마 5세의 죽음을 아뢰는 디바(상게 갸초)의 상주(上奏) (이와타 케이스케)

www.kci.go.kr

관련 연표(1206～1912)
후기
지도・도판・계보도・사진 일람
인명 색인・지명 색인・사항 색인

첫 부분인 「<청조사총서> 발간사」에서는 중국 왕조 중 하나로 청조의 역사를 파악하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만주인, 몽골인, 한족의 합동 정권인 대청제국이 티베트・중앙아시아까지 세력권을 넓히게 된 경위, 나아가 러시아・일본・유럽과의 관계까지 포함시켜 세계사 속에서 청조를 이해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중국'의 실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는데도 기원전부터 존재하는 한자와 한문이 시대를 불문하고 그 변화의 실체를 가리고 있다 보니 중국 문명은 마치 오천 년 동안 변함이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636년에 만리장성 북쪽의 선양(瀋陽)에 세워지고 1911년의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인해 이듬해인 1912년에 멸망한 청조의 지배계급이었던 만주인의 모어(母語)는 한자, 한문이 아닌 알타이계 언어 만주어였다는 점, 청조가 보유했던 광대한 영토의 사분의 삼이 역시 한자, 한문을 사용하지 않는 땅이었음에 주의를 환기하면서, 276년 동안 지속된 청조 치하에서 몽골이나 티베트, 신장(新疆) 등을 포함해 제국 전역에서 통용되는 언어는 만주어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공용 문서는 만주어나 만한합벽(滿漢合璧)(병기)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중화민국 건국 후 거의 죽은 말이 되어버린 만주어가 사실은 청조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본 <청조사총서>는 만주어만을 중시할 생각은 없으며, 청조는 대단히 드넓은 영역을 통치한 국가였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전문으로 하는 언어도 다르고 사료도 다양하다. 따라서 총서 각권은 느낌이 퍽 다른 책이 될 것이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 '일본의 청조사 연구 수준은 세계 제일이므로 본 총서를 모두 완독한 후에는 틀림없이 청조 전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며 본 총서가 일본이 전 세계에 전파하는 문화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맺고 있는데, 이는 한적(漢籍)뿐 아니라 만주어나

www.kci.go.kr

몽골어, 티베트어까지 종횡무진하며 동양사 연구에 일생을 바친 오카다 선생의 유언과 같다 하겠다.

「(序)청조란 무엇인가」는 앞서 언급한『청조란 무엇인가』중 오카다 선생께서 집필한 부분인「세계사 속의 대청제국(世界史のなかの大清帝國)」을 재수록한 것이다. 몽골제국을 계승한 청조의 모습을 그 성립에서 붕괴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강희제의 편지가 작성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지는 '강희제의 편지' 본문에는 원판인 주코신서판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신되 '외몽골'과 '내몽골'을 '북몽골'과 '남몽골'로, '소련'을 '러시아'로 바꾸는 등 시대를 반영하여 표현을 새로이 하였다. 그 밖에도 명백한 오류는 수정했지만 더욱 중대한 오류가 있었으니, 구판에서 음력에서 양력으로 환산하며 날짜가 모두 하루씩 밀려났던 점이다. 출판 직후 이를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재판이 되지도 않아 더 손대지 못하고 있다가 이 참에 제대로 수정하였다. 갈단이 죽은 날이 하루 틀리게 표기되어 있는 등 대단히 중대한 오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서판에 없었던 만주어 문헌 출처주와 총 195개에 달하는 측주가 추가되었다.

내용에 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자. 1661년에 여덟 살의 나이로 즉위한 강희제는 61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 동안 본토에서는 삼번(三藩)의 난을 진압하고, 러시아와 네르친스크조약을 맺었으며, 본서에 소개된 몽골의 영웅 갈단을 물리쳐 북몽골을 세력권에 넣었고, 나아가 티베트에까지 세력을 넓혔다. 본서는 강희제가 북몽골의 할하부와 서몽골의 오이라트 제부(諸部) 중 하나인 준가르부 사이의 다툼을 조정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준가르부의 군주 갈단이 할하부에 침입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

1688년, 오이라트 제부를 통일한 준가르의 부족장 갈단이 삼만의 병사를 이끌고 북몽골을 침입하자 수십만에 달하는 할하부 사람들은 남몽골로 피난하여 청조에 보호를 요청한다. 몽골인은 16세기 이후 열렬한 티베트불교 신자가 되었는데, 갈단은 티베트 고승의 환생으로 인정되어 어린 나이에 티

www.kci.go.kr

베트에 유학하며 달라이 라마 5세와 판첸 라마 1세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형이 암살되자 원수를 갚고 형의 뒤를 이어 달라이 라마 5세의 후원 속에 대제국 건설에 뛰어들게 된다.

1690년, 갈단은 남몽골 동부에 침입하여 베이징에서 3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청군과 교전을 벌인다. 이에 강희제는 갈단과의 대결을 결심하고 1691년에 남몽골의 도론노르(원(元) 상도(上都)의 도읍터)에서 망명해온 할하인들로부터 신종(臣從)의 예를 받는다. 갈단의 손에서 북몽골을 탈환할 정당한 이유가 생긴 강희제는 고비사막 횡단작전을 결의하고 3개 군단을 편성한 뒤 세 방향에서 진군하여 갈단을 포위하기로 한다. 그중 강희제는 중앙을 행군하는 중로군(中路軍) 3만 7천명을 직접 지휘하며 1696년에 베이징을 출발하여 지금의 몽골국 동부 헤를렌강으로 향한다.

이 몽골 친정 동안 강희제는 베이징에 있는 황태자에게 자주 만주어 편지를 적어 보내는데, 이를 통해 강희제는 진군 상황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접한 몽골의 자연이나 기후에 대해 적기도 하고 황제 본인의 나날의 생활상을 적기도 하였으며 황태자나 황태후의 안부를 빠짐없이 묻는 등 자신의 마음을 전한다.

제1차 친정에서 강희제의 본군(本軍)은 헤를렌강에 도달하나 갈단은 간발의 차로 도주한 상태였다. 그러나 강희제는 운이 좋았다. 후후호턴을 출발하여 고비사막 서부를 가로지른 서로군(西路軍)이 갈단이 향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가 지금의 울란바타르시 동부 존 모드 지방에서 갈단군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힌 것이다.

갈단은 가까스로 탈출하여 알타이산맥 동쪽 끝에 잠복하며 티베트로 도망칠 기회를 엿본다. 그러자 강희제는 다시 제2차, 제3차 남몽골 친정에 나선다. 이러한 가운데 섭정이 달라이 라마 5세의 죽음을 16년이나 숨겨왔다는 사실이 발각되기도 하고 갈단이 병으로 죽은 것을 강희제가 자살로 단정 짓기도 하는 등 갖가지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다.

본서에는 강희제의 감정이 담긴 다양한 편지들이 소개되어 있다. 예전에 신서판 간행 직후의 서평에서 필자는 그 중에서도 압권은 다음 편지일 것이

www.kci.go.kr

라고 적은 바 있는데(『月刊シルクロード』 6-2, 1980, 55쪽) 지금도 그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 '황태자에게 이르노라. 짐이 군대를 이끌고 전진할 때는 모두가 한마음이었다. 지금 갈단을 패주시켜 그 궁한 모습을 이 눈으로 확실히 보고 이에 상응해서 군대를 출격시켰다. 지금 경사스럽게 귀로에 오르기 때문에 네가 아주 그립다. 지금 기후는 덥다.
>
> 네가 입은 면사(棉紗), 면포(棉布)의 긴 옷 네 벌, 조끼 네 벌을 보내는데 반드시 낡은 것을 보내라. 아버지가 너를 그리워할 때 입고 싶다. 내가 있는 곳은 양고기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12일에 황태자가 보낸 몇 개인가의 물건(송화강의 송어 튀김)을 맛있게 먹었다. (중략)
>
> 나는 토노 산에서 바얀 울란을 바라보았다. 어떤 장애물도 없다. 하늘 아래 땅 위에 이 할하의 땅 같은 곳은 없다. 풀 이외에 (온통 강아지풀만 있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좋은 곳이 없다.'[4]

당시 필자는 오카다 선생의 지명을 받아 이 서평을 작성했는데 서평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썩 호의적이지 않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필자의 처녀 논문 「17세기 청조 귀속시의 할하 몽골」이 오카다 선생의 추천으로 『동양학보(東洋學報)』 개설 부분에 실리기로 일찌감치 정해져 있었는데, 쇼가이토 마사히로(莊垣內正弘) 씨의 논문이 도착하지 않는 바람에 『동양학보』의 출간이 크게 늦어져 『강희제의 편지』가 먼저 출간되고 만 것이다. 오랜 세월 준가르 연구에 종사해 온 교토대학의 하네다 아키라(羽田明) 선생이, 도쿄대학의 야마구치 즈이호(山口瑞鳳) 선생으로부터 직접 티베트 사료에 관한 가르침을 받은 오카다 선생의 갈단전(傳)에 분한 마음이 들던 차에 필자의 매서운 서평을 읽고 기뻐했다가, 노지리호쿠릴타이(野尻湖クリルタイ)[5] 모임 석상에서 뒷이야기를 듣고 더욱 분통을 터뜨렸던 것도 지금은 그리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이어지는 '보(補)'에는 '강희제의 편지'와 관련된 저자의 학술논문 여섯

4) 역자주 : 『강희제의 편지』 한국어판, 경인문화사, 2014, 136쪽에서 인용.
5) 역자주 : '일본알타이학회(日本アルタイ學會)'의 통칭.

www.kci.go.kr

편이 재수록 되어있다. 그중에서도 「1. 몽골 친정시의 성조의 만문서간」은 '강희제의 편지'를 사료로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논문이다.

『궁중당강희조주접』에는 강희제의 만문 편지 영인본이 실려있는데 사실 강희제가 적은 순서대로 실려 있지는 않다. 이를 일찍이 알아챈 저자는 강희제가 세 차례의 원정 동안 언제 어디에 머물렀는지를 『청조실록(淸朝實錄)』에서 일람한 뒤, 내적 증거나 『친정평정삭막방략(親征平定朔漠方略)』 안의 인용 등을 바탕으로 날짜를 확정 또는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궁중당강희조주접』의 문서번호 순서를 바꾸어 재배열하였다. 이 순서대로 읽어야 진상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2. 갈단은 언제 어떻게 죽었는가?」와 「3. 티베트・몽골문 젭춘담바 전기 자료 5종」, 「4. 강희제의 만문 서간에 보이는 예수회 선교사의 영향」 이 세 편의 논문은 해외 학회에 참가했을 적에 보고했던 영문 논문을 이번에 저자가 직접 일본어로 옮긴 것이며, 「5. 강희제와 천문학」은 '강희제의 편지'를 사료로서 논한 짧은 에세이다. 「6. 개원성신고」는 저자가 워싱턴 대학에 유학했던 1960년에 집필한 것으로 강희제의 편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저자의 만주학 연구를 되짚어 보는 데 의의가 있어 예스러운 한문투 문장은 구어체로, 인용한 한문은 일본어로 고쳐 재수록하였다.

마지막 '사료(史料)' 다섯 가지는 총서연구회 멤버인 구스노키 요시미치 씨, 스즈키 마코토 씨, 이와타 케이스케 씨가 1979년 당시에는 이용할 수 없었던 만주어 사료를 일본어로 옮긴 것이다. 「1. 도론노르회맹」은 『친정평정삭막방략』의 만문본에서 옮긴 것이며, 나머지는 베이징제일역사당안관(北京第一歷史檔案館)이 소장하고 있는 만문자료로 『청내각몽고당당(淸內閣蒙古堂檔)』으로 간행된 서책에 수록되어 있다. 원 사료의 직역은 앞으로 청조사 연구에 뜻을 두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큰 자극제가 되리라 본다. 지도나 계보도, 도판도 많이 늘었고 인명, 지명, 사항 별로 나뉘어진 색인도 향후의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www.kci.go.kr

그러면 이어서 2014년 5월에 한국에서 출간된『강희제의 편지』한국어판(경인문화사 간행)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판형도 <청조사총서>보다 크고 630쪽이나 되며 한국어의 가로쓰기 특성상 원서 본문의 측주는 각주로 바뀌어 있는데, 원서의 측주가 195개인 데 반해 한국어판에는 무려 405개의 각주가 달려 있다. 역자인 남상긍 선생 본인의 연구 성과가 투입된 결과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어판에는 본문과 '보(補)'의 다섯 편의 논문 말고도 336쪽부터 이어지는 후반부에 타이베이의 고궁박물원이 출간한『궁중당강희조주접』제8집・제9집에 수록된 강희제의 편지의 자필 만주어 원문 복사본이 로마자 전사까지 달려 모두 실려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독자뿐 아니라 우리 일본인 연구자에게도 대단히 편리한 부분이다.

한국어판의 출간 경위에 대해 적자면, 2011년 10월에 역자이신 남상긍 선생으로부터 주코신서판『康熙帝の手紙』의 한국어 번역이 거의 끝났으니 한국 출판을 허락해 주십사 하는 내용의 팩스가 오카다미야와키 연구실(岡田宮脇研究室)에 도착했다. 남 선생과 오카다 선생은 일면식도 없었고 그때까지 성함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훌륭한 일본어로 적힌 정중한 편지를 읽고 기꺼이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개정증보판을 <청조사총서>의 제1탄으로 간행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주코신서판의 음양력 환산시의 오류를 정정한 신판을 번역해 주십사 남선생께 부탁드리게 되었다.

그러나 후지와라서점이 제2탄 이후의 출간 일정이 잡히고 난 뒤 시리즈 출간을 시작하고자 하면서『康熙帝の手紙』출간은 처음 예정보다 늦어지고 말았다. 게다가 신판은 구판 본문에 출처주와 측주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논문이 여러 편 추가되는 대대적인 개정증보판이었다. 이에 난처해지신 남 선생께서는 주변분들 및 출판사측과 의논하셨고, 구판 상태로 내자는 쪽과 신판을 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던 모양인지 상당히 고민하신 듯하다.

이에 후지와라서점에서 책이 나온 후 개정판의 한국어판이 바로 출간될

www.kci.go.kr

수 있도록 2012년 7월에는 초고 교정지를 일단 남 선생께 보냈는데, 선생께서는 수정 부분뿐 아니라 새로운 출처주와 측주까지 번역하고 싶다고 알려오셨다. 이후 상당히 무리를 하신 것이 아닌지, 그 점이 못내 마음에 걸린다.

2012년 11월에 오카다 선생께서는 중증 심부전으로 입원하셨고 신장기능까지 떨어져 한때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이 일로 2013년 3월에 간행될 예정이었던 것이 1월로 앞당겨졌고 남 선생께도 2월 초에 신판 『康熙帝の手紙』가 도착했다. 선생께서는 감사 인사와 함께 오카다 선생의 안부를 걱정하는 편지를 보내오셨다. 그러나 한국어판 출간을 기다리고 있던 오카다 선생 앞으로 남 선생께서 2013년 10월 28일에 담도암으로 타계하셨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따님이신 남혜림 씨로부터였다.

따님의 편지에 따르면 6월에 암 진단을 받으신 후에도 병상에서 교정 작업을 하셨고 역자 서문까지 완성한 후에 눈을 감으셨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강희제 및 그가 편지를 보낸 황태자에 대한 이야기를 따님께 들려주시며 책 출간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셨다고 한다. 생전의 남 선생께서는 한 점 틀린 곳 없이 정확한 일본어 메일을 여러 통 보내오셨는데 이는 모두 따님이 번역하신 것이었다. 이에 한국어판 출간에 부치는 저자 서문을 부탁 받았을 때 그 번역도 따님께 맡기게 되었다.

2013년 말로 잡혀있던 출간 일정이 반년 정도 늦어진 끝에, 2014년 5월에 멋진 한국어판 『강희제의 편지』가 출간되었다. 남혜림 씨가 보내온 감사 메일에는 '아버지께서는 정년퇴임 후 그간의 연구 인생에서 쌓아온 지식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채 다소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康熙帝の手紙』를 알게 되셨고, 오카다 선생님의 연구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시며 진지한 눈빛으로 번역에 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식구들이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한 나머지 잔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아버지께서 다시 한 번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책을 만나신 것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오카다 선생께서 한국인 독자에게 보낸 서문은 한국어뿐 아니라 원문인 일본어로도 실려 있다.

www.kci.go.kr

이후에도 남혜림 씨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며 본 서평은 일본의 『만족사연구』 13호와 거의 동시인 2015년 6월에 간행될 예정인 한국의 만주학회 학회지 『만주연구』에도 한국어로 번역되어 실릴 예정이다.

한 가지 더 소개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오카다 선생의 또 다른 저작 『몽골제국에서 대청제국으로(モンゴル帝國から大清帝國へ)』(藤原書店, 2010.11, 557쪽)의 대만판이 조만간 출간된다는 점이다. 대만 쪽에서 먼저 후지와라서점으로 출판 허가 여부를 타진해 왔으며, 번체자 한어 번역은 대만의 만주학자 좡지파(莊吉發) 선생의 제자인 뤄성지(羅盛吉) 씨가 맡았다. 역자로부터 나카미 타테오(中見立夫) 씨를 통해 오카다 미야와키 연구실로 연락이 왔는데, 이후 직접 메일을 주고받으며 총 44개의 질문을 받았다. 뤄 씨는 출처까지 전부 확인해가며 방대한 저서를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살펴주었고, 여러 학문적인 질문 외에도 단순한 교정 실수, 서로 다른 사람을 동일 인물로 취급한 색인 오류, '청 태종 즉위의 사정(清の太宗嗣立の事情)'에 인용한 『구만주당(舊滿洲檔)』 단편(斷片)의 상하 탈락(433~444쪽)에 대해서까지 지적해주었다. 필자도 편집을 담당한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으나,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젊은 외국인 학자가 오카다 선생의 학문을 이토록 열심히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뿌듯할 따름이다.

또한, 『세계사의 탄생(世界史の誕生)』(岡田英弘, 筑摩書房, 1992년)은 한국어판, 몽골어판, 대만판이 출간되었는데, 중국으로부터도 간체자 출판허가 요청을 받은 상태다. 간다 노부오(神田信夫), 마쓰무라 준(松村潤) 두 분의 공저 『자금성의 영광(紫禁城の榮光)』(講談社學術文庫)도 사회과학문헌출판사(社會科學文獻出版社)에서 간체자로 출간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조사총서>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덧붙이고자 한다. 제1탄 『강희제의 편지』 출간 직후인 2013년 2월, 편집을 주로 담당한 구스노키 요시미치, 스기야마 키요히코, 그리고 필자 이렇게 셋을 후지와라서점 사장이 인터뷰하는 형태의 좌담회 '<청조사총서>의 현대적 의의'가 열렸다(≪環≫53號, 藤原書店, 2013.4). <청조사총서>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부

www.kci.go.kr

분이니 구체적인 내용은 그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시리즈 제2탄은 도요오카 야스후미(豊岡康史) 씨의 『'해적'과 청조－동남연안의 사회・경제・국제관계(「海賊」と清朝東南沿岸の社會・經濟・國際關係)』로 여러 차례 편집회의를 거쳤고 초고 교정지도 나온 상태라 올해 안에는 출간될 예정인데, 제3탄 이후가 답보 상태다. 강력하게 밀고 나갈 사람이 없어 연구회까지 정체된 상태라 저자를 더욱 많이 모집할 생각이다. 만주어만 고집할 이유는 없으며, 큰 의미에서 청조와 관련이 있기만 하면 된다.

현재 결정된 저자와 가제목을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모두 연구 발표는 끝난 상태라 책의 내용은 가닥이 잡혀있지만 이를 집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구스노키 요시미치, 『에도의 청조 연구－오규 소라이에서 나이토 코난까지(江戸の清朝研究－－荻生徂徠から內藤湖南へ)』

마크 엘리엇(Mark Elliot), 『건륭제(乾隆帝)』

오카 히로키, 『대몽골국의 유산－청조의 '외번' 통치(大モンゴル國の遺産－清朝の「外藩」統治)』

스기야마 키요히코, 『팔기・자삭크기・녹기－제국의 군대와 전쟁(八旗・ジャサク旗・綠旗－帝國の軍隊と戰爭)』

미야와키 준코, 『최후의 몽골 유목제국－청의 호적수 준가르(最後のモンゴル遊牧帝國－清の好敵手ジューンガル)』

와타나베 준세이, 『명청이 받아들인 서구과학(明清の受容した西歐科學)』

그 밖에 야나기사와 아키라(柳澤明), 나카무라 카즈유키(中村和之) 두 분이 제목은 미정이지만 참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필자 본인은 어떠한가 하면, 역시 후지와라서점에서 출간 중인 오카다 히데히로 저작집 전8권 가운데 5권이 이미 출간되었고 (초판 3000부로 모두 순조롭게 증쇄 중), 제6권 『동아시아사의 실상(東アジア史の實像)』의 편집 작업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며 제7권 『역사가의 시선(歷史家のまなざし)』(저작 목록・저자 연보 수록)과 제8권 『세계적 유라시아 연구의 50년(世界的ユーラシア研究の50年)』(학회에 보고한 내용이 한 권에 수록

www.kci.go.kr

되어 있음)는 2015년 안에 동시 출간될 예정이므로 이들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준가르 연구에 복귀할 생각이다. 다만 졸저『최후의 유목제국 준가르부의 흥망(最後の遊牧帝國 ジューンガル部の興亡)』(講談社選書メチエ, 1995년)을 출간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준가르 연구는 이후 진전을 거듭했고, 이용할 수 있는 만주어・몽골어 사료도 많아졌다. 다시 한번 어느 연구실에 제자로 들어가 만주어 문헌 독해 지도를 받으며 새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만족사연구회(滿族史研究會) 여러분께도 신세를 지게 될 것 같으니 모쪼록 잘 부탁드리는 바이다.

참고문헌

『康熙帝の手紙』岡田英弘, 中公新書, 1979
『清朝とは何か』『環』別册⑯, 岡田英弘編, 藤原書店, 2009
『モンゴル帝國から大清帝國へ』, 岡田英弘, 藤原書店, 2010
『宮中檔康熙朝奏摺』제8・9집, 國立古宮博物院, 1977

투고일 : 2015년 4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5년 6월 10일

www.kci.go.kr